

최근 歐洲 電子 産業界의 動向

- 不況 脱出을 위한 길로 -

停滯가 계속되고 있는 歐洲 경제의 곤궁한 처지가 단번에 회복되면 좋지만 사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西獨은 금년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 이상 기후가 계속되어 猛暑에 시달렸는데 이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歐洲 전지역이 대상이었던 것 같다.

自然界의 飢饉은 不況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여기에 덧붙여 不況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타당성이 다소 결여되긴 하였으나 적어도 西獨, 프랑스, 英國의 3大國 産業界에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나타낼 그 이상의 적절한 표현을 찾기 어려울 만큼 황폐해 가고 있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歐洲에 사무소를 갖고 있는 관계자는 유럽 경제가 대단히 장기적인, 약 10년에 걸친 不況의 周期에 빠져 버렸다고 견해를 밝혔다.

73년말부터 74년의 제 1 차 石油 危機를 계기로 고용 규모가 큰 鐵鋼, 重機, 섬유가 피폐해지고 말았다. 그 위에 産業 구조의 전환이 당연히 병행되어야 했으나 電子化의 對應이 지연되고 만 것은 그 후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켜, EC (歐洲共同體)의 평균 失業率은 10%라는 숫자로 나타났던 것 같다.

EC 域内の 실업자는 1,200만명에 달하고 25세 이하의 젊은 근로자 비율이 아주 높다는 점이 주로 자동차, 重機 같은 성장 산업에서의 위기감을 강하게 풍기게 하고 있다.

西獨은 200만명의 실업자를 갖고 있으면서 Robot化에 의한 合理化를 추진하기가 어려워 Dilemma에 빠져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다만 西獨을 실업률로 보면 9% 대로 英, 프랑스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곧 근로 의욕의 감퇴가 덜하다는 숫자로 볼 수 없는 일도 사실인 것이다.

활기에 찬 듀셀도르프에서 실제로는 할 일거리가 있어도 노동자들은 이미 퇴색해 버린 他地 별이를 계속 찾으려는 경향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는 소문이다. 이것을 自國의 경제적 확장을 뒷받침하는 것에 산 노동력을 끌어들이는 데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결과 反作用으로 이제는 정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점에 문제의 뿌리가 깊음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美·日과 더불어 經濟大國인 西獨을 완벽하리

1. 成長 분야에도 危機感

계절로 치면 歐洲는 겨울에 처해 있다. 대폭적인 通貨 하락, 勞動 시간 단축 爭議, 기후 불순의 3重苦에 시달렸던 産業界이지만 그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自動車와 電子機器다. 특히 成長性이 높은 電子 분야에서 긴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업이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

家電 부문에서는 VTR이 보합 상태. 일반 소비의 냉각이 大型 商品의 需要 低迷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저한 例가 된다. 국가 財政을 압박하는 企業의 정리 통합이 진행중이더라도 CATV, DBS라고 하는 첨단 技術에 기대를 걸고 있는 各國 정부다. 그러나 不況 脱出의 길은 멀고 험하다.

10月 3日에는 東京에서 제 2 회 家電機器에 관한 日·EC會議가 개최되었다. 市場 동향 및 장래 技術의 적극적인 情報 교환이 이루어져, EC 측은 技術的 우위에 선 日本에 요구하는 입장이 되었고, 日本은 保護貿易의 탈피를 주장하였다.

만큼 강타한 사건이 5, 6월에 걸쳐서 발생하였다. IG Metal (西獨 金屬産業別勞組)의 週 35시간 노동으로 시간 단축 투쟁이 그것이었다.

자동차, 重機, 鐵鋼의 勞組 250만명으로 구성된 IG Metal의 週 35시간 노동 요구는, 임금을 동수준으로 하고 노동 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Cost 상승을 초래, 生産性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는 국제경쟁력 상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 타격은 아주 커서 ZVEI (西獨電機工業會)는 약 5억~10억마르크 (1억~2억弗 정도)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년에는 猛暑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레저 쪽으로 몰려, 좋은 날씨에 기대를 걸고 있던 電機 업계에 있어서는 二重苦를 안겨 주게 되고 말았다. 35시간 노동을 주장하는 스트라이크로 첫번째 타격을 받은 것은 自動車 업계였다. 생산물량에서 前年 실적을 크게 하회해, 一說에는 약 3억弗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失業者를 구제하는 데는 1인당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고용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는 組合員에 대해, 회사측은 공장 폐쇄 등의 강행 수단으로 응하였으나 피해가 여기까지 확대되어 쌍방의 주장은 위기감마저 느끼게 하였다. 이런 상태하에서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의심스럽다.

2. 尖端技術의 電子工業에서 雇用 擴大

스트라이크의 영향은 금년 여름 이후의 市場에 작용하였다. 업계가 賣上 부진으로부터의 脱出을 기획했던 HiFi Video '84가 좋은 날씨에 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入場客의 감소를 면치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商談室을 넓히는 등 交易展의 색채가 농후했던 만큼, 현재 歐洲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할 거리가 없는 상황이다.

西獨에 있는 도이츠松下電器의 社長은, 경제계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말하였다. 急回復이 전망되지는 않지만 프랑스, 英國에 비교할 경우 기대감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現地法人의 견해인지도 모른다.

英國에서는 炭鑛 스트라이크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政府는 영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勞組 문제에는 머리를 앓고 있다. 勞組에 강한 자세로 임하므로써 勞使間의 대화가 없는 일이 스트라이크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은 組合 내에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고 있다는 추측이다. 英國 경제 자체의 活性化야말로 先決 문제라는 새로운 발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政府는 戰後 40년간 국가 財政을 압박해 온 不振 企業의 民營化에 나서고 있다. British Telecom社가 바로 그것인데 오랜 전통과 역사를 과시하는 세계적인 大企業도 이제 다시 소생을 하여 國際競爭力을 되찾고 있다. 그 성공의 이면에는 第2電電인 Mercury Communications社 등 有力 企業이 株式을 인수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에서는 英國의 Computer 대기업인 ICL 株式 9.8%를 美國의 ITT가 35%의 株式을 보유하는 STC (Standard Telephone & Cables)에 賣却하기도 하여, 기업 재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만으로는 완전 고용 회복의 전망은 하기 어렵다.

국내 不振을 輸出 振興으로 탈출해 보려고 하는 프랑스는 어떠한가.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西獨이 GNP에서 3%대에 머물고 있다지만 프랑스는 문제 밖이다. 700억弗에 이르는 債務國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긴축 등 180°의 政策 전환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는데, 임금 억제, 인원 정리, 自動化... 미래를 겨냥한 耐乏 등의 조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핵심에는 이르지 못하고 최근 家電機器 업계는 輸出 倍增의 정책을 펴서 内需를 커버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더욱 프랑스 政府는 성장 市場인 VTR에 대해서 한 차례의 포와치에 소동 이후에도 변함없이 日本製 VTR의 수입을 계속 規制하고 있어, 중요한 고비에 처해서도 소비 需要를 냉각시키는 결과를 취하고 있다.

최대 國營 電機 업체인 Thomson Brant는 日本製 VTR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무시해 버리고 JVC의 Camera 一體型 VTR 「VHS Video Movie」를 취급할 의향이 있다.

각 産業界가 주목하고 있는 VTR에 대해서 英國과 프랑스는 아주 대조적이다. 즉, 英國에서

는 VTR을 판매하려고 해도 판매가 되지 않는다. 사실 보급률이 30% 전후로 높아서 前年을 하회하고 있고 연간 200만대를 밀돌 것으로 BREMA(英家電製造者團體)의 조사에 나타났다.

런던 市内의 電子製品街에는 Video 전문점이 Audio賣場을 부활시켜 가는 추세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西獨에서는 현재, 가정의 VTR 보유대수는 금년 봄에 350만대를 넘어 世帶數에서 보는 보급률은 약 15%(西獨 Video 協會)로 영국과 같은 비관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歐洲에서는 몇 차례씩 脱工業化 社會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방출된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尖端 技術을 중심으로 하는 電子工業 이외는 없다고 하는 점에서 일치한다.

外國의 전문가(歐洲事務所長)는 이에 대해서, 「고용 규모의 확대에는 시간이 걸린다」 새로운 産業 기반 위에 조성되면 Software 면을 흡수하여 행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電子를 핵으로 하는 경쟁력의 강화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優位에 선 日本도 歐洲市場에서는 GATT(關稅 및 貿易에 관한 일반 協定) 울타리에 막혀 있다. 이미 日本은 제품 輸出國에서 資本 수출國으로 전환을 시도해 오고 있으며, 현지에서의 무역 마찰에 머리를 싸매고 있으면서도, 전통적인 대량 고용형의 산업의 기반 沈下를 측면에서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 歐洲에서의 日本 전자산업이 수행하는 일이라는 우월감에 차 있는 것이다.

3. 尖端 技術과 對日 의존

Made in Germany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西獨의 유력紙 FAZ는 얼마 전 紙上을 통해 이렇게 부르짖었다. 길거리마다 Show Window 안에는 반드시 日本製 VTR이나 Video Camera가 진열되어 있고 많은 젊은이들은 역시 日本제의 薄型 라디오나 Mini Cassette Player를 갖고 활보하고 있다는 嘲笑가 기사의 요지였다.

이 배후에는 歐洲市場을 日本에 의해 석권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決意가 깃들어 있다. 물론 家電機器 분야에서는 절대 철수하거나 지지 않겠다는 歐洲勢의 의사 표명이라고도 받아

들일 수 있다.

西獨의 Grundig社 會長인 H. Corning씨는 가정용 VTR에 대해서 Made in Germany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의 V-2000이 아니라 VHS에 있어서다. 최근의 Grundig는 일단 국제적인 經營 사상을 도입하고 있고 보다 견실한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同社는 Philips(네덜란드)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어 전통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Corning 會長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80年代 후반부터 21世紀에 걸쳐서 情報化 사회에 돌입하게 되면 가정에서는 端末機의 System이 필히 현재의 家電機器 분야가 핵심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歐洲 업계의 再編은 갖가지 과문을 던져 주었으나 장기간에 걸쳐진 不況의 탈출을 위해서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歐洲 메이커의 大聯合 構想은 그간 몇 차례의 轉換을 겪었다. 현재의 2大 세력인 Thomson(佛) - AEG Telefunken(西獨), Philips(네덜란드) - Grundig(西獨)으로 낙착된 것은 금년 봄 이후였다.

물론 Thorn EMI(英)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고, 붓슈, 브라우퐁크트(西獨)의 입장도 있겠지만, 크게 보아 Philips, Thomson의 2大 기업이 機關車가 되어 歐洲 3大國 또는 EC 域內에서의 發言權을 강화해 갈 것이다.

현재 그들은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 관계자가 우선 처음으로 들고 있는 것은 敗北에 대해서 솔직히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日本에 대해 과소평가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日本이 불공평하여市場은 폐쇄적이며, 연간 2,000시간을 노동하고 있으나 西獨의 경우 1,700시간 정도만 노동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모든 기초 技術을 터득하고 있으면서도 日本이 技術 移轉에 응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EIAJ 歐洲事務所長)

여기서 歐洲勢가 얻은 結論은, EC의 2억7,000만명에 달하는市場에서 대량 生産品에 의한 경쟁력을 다시 갖추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歐洲의 주요 국가들이 미래의 도약대로서 부르짖는 ESPRIT計劃도 이러한 認識이 동기가 되었다.

EC 가맹국이 국경을 초월하여 官·産·學協
力에 의해 情報産業에서 9 가지의 기초 연구를
10年 동안에 달성하려고 하는 장대한 Plan이 바
로 ESPRIT 計劃이다.

이 ESPRIT에 대해서는 本稿의 후반에서 상
세히 밝히겠지만, 우선 당면 課題는 尖端 技術
에 대한 구상으로서 대량 생산품에 의한 경쟁력
강화인 것이다. 歐洲 최대 메이커인 Philips가
지도 최근에는 「대규모 집중 生産主義」를 주장
하고 있어, 歐洲가 2, 3개의 Group으로 집약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① 불필요한 경쟁이 없어
지고 ② 日本 메이커에 대한 對抗力이 생긴다고
한다.

이런 현상이 보다 현저하게 나타난 것은 家電
機器다. 그 중에서도 成長 분야인 VTR에서는
Philips와 Grundig가 VHS 方式을 채용하고 한
편에서는 Thomson이 VHS用 部品 생산에 착수
하여, 歐·日 합병 생산 사업을 밀어 부친다는
VHS 일색의 地圖가 완전히 형성되어 가고 있
다.

그래서 市場은 일시적으로 活性化되긴 하였으
나, 이번에는 VTR 在庫 과잉이 각국에서 문제
가 되고 있어서, Thomson의 경우, 日本의 기술
은 인정할 수 밖에 없으나 供給 과잉은 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조하고 있다.

在庫 과잉과 亂賣 문제는 歐洲나 日本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포와치
에를 필두로 극도의 日本製 VTR 輸入 제한을
계속해 온 프랑스도 日本의 VTR 기술이 제일
좋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국민의 요구에 응해서 VHS Video Movie 등 最
新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방침을 다시 굳히고
있다.

Thomson Brant의 代表 역시, 日本에의 기대
는 High Technology에 의한 High Quality에 대
한 것이라고 밝혔다. 歐洲 메이커의 수뇌진은
VTR에 한해서 日本의 電子産業을 높이 평가하
고 우수한 技術을 잊지 않고 있다.

Grundig 會長은, Analog로부터 Digital 시대
로 이행되어 가고 있으므로 尖端 技術이 각 産
業에서 요구되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日本 제
품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은 과거로부터의 知
名度(Name Value)가 아니라 技術性的의 품질이

라는 데에 起因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이 아니고서라도 不振 현상을 계
속하고 있는 歐洲 경제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는 日本의 우수한 技術 도입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歐洲가 안고 있는 課題인 것이다.

4. 競爭力 저하, 內需 不振

歐洲에서는 과거 日本의 技術을 도입해 간 관
제로 日本과는 Partner Ship이 형성되어 있다
는 신뢰감이 있다. 반면에 日本에 대한 의심은
끊기 어려운 입장이다. 기회만 주어지면 EC 域
내로부터 추방하기 위해 각국이 結束을 강화시
킨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물론 自力更生의 노력을 태만히 하는 것은 아
니며 직면해 있는 國際競爭力 低下와 內需 不振
과의 딜레마 중에서 自國 産業 보호를 위해 日本
제품에 대한 반발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關稅 장벽, 非關稅 장벽 등 日本 제품에 대한
각종 구속은 문제점을 돌려치는 것 밖에 되지 않
는다.

日本製 VTR의 수출 自主規制 조치는 2년제
에 들어섰다. 英國에서는 보급률이 35%에 달해
VTR의 이탈이 눈에 띄고 있는데, Video Soft
ware의 히트작이 나오고 있지 못한 것도 큰 문
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는 過度의 輸入制限으로 市場이 냉각되
기 시작하였다. 西獨에는 비교적 풍부하게 공급
되고 있으나 需給과 가격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링크되지 않는다.

각국의 사정은 흡사 萬華鏡을 방불케 하는데,
規制措置는 제각기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
지에서는 지금, Philips社와 Grundig社의 Ma
rketing 실패, VTR의 빠른 기권 등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反省의 소리도 빗발치고 있다.

日本 메이커는 이미 VTR의 현지생산화를 적
극적으로 추진시켜 무역 마찰의 회피에 나서고
있다. 日本 Victor — AEG Telefunken 子會社
TFR(西獨) 및 Thorn EMI(英) — J2T (네델
란드)를, 또 松下電器 — 富士(西獨)가 MBVi
deo(西獨)를 각각 설립해서 VHS 방식 VTR의
합병 생산을 실시하고 있는 외에 日立, Sony,
東芝, 三菱電機, 三洋電機, 赤井電機, Sharp

등이 현지생산중이거나 또는 계획중에 있다.

그 대부분은 日本側이 VTR의 반제품을 수출해서 EC 域内の 工場에서 조립하고 있으나, 이 경우 EC·日간의 輸出自主規制措置에 있어서는 조립할 때 사용하는 部品 가운데 25%는 歐洲製를 충당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다. 美國의 自動車部品 國內調達法案에 준한 일종의 義務附지만, 半製品을 輸出規制 대상 외로 하는 것은 현지의 고용을 감안한 것이라는 EC측의 요구도 日本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25%가 85년에는 45%까지 인상될 기미가 보인다. 10월 중의 EC·日 會議에서 部品の 工賃, 運賃도 포함한 부가가치율로 45%가 새로이 결정될 가능성은 있다.

EC 내에서는 최저 60%의 内製率이 아니면 歐洲製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업계측의 말이 일반적이다. 日本 메이커 중에서는 日本 Victor 가 프랑스의 Thomson에 기술을 공여하고 있고, 松下電器 그룹도 현지에서 部品 생산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Philips社와 Grundig社도, VHS를 채용하였으나 어디까지나 독자적으로 생산할 체제를 조기에 정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C 域内에서 일본제 VTR이 재고 과잉 상태를 빚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시키는 중에 가격 붕괴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EC·日 사이에서 결정한 일본제 VTR의 제한은 84년에 505만대(반제품 포함)지만 各社가 割當分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는 미묘한 일이다.

별써 한가지 일을 보면, 輸出自主規制와 동시에 歐·日간에 설정되었던 최저 수출가격에 대하여, 通産省이 1臺當 일률적으로 5,000엔을引下, 8월 중순 船積分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歐洲의 반응은 자지각색으로, 대개는 가격 붕괴에 拍車가 가해지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다.

歐洲 通貨가 弗, 엔에 대해서 10% 이상 하락하고 있어서, 歐洲 通貨로의 지분이 收益을 압박하고 있음을 호소하는 수출업자를 구제하는 것이 급하다고 通産省은 말하고 있다.

EC측은 日本측의 이 조치에 대해서 後日을 염두에 두고 VTR 輸出 수량의 대폭 삭감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재는 VTR의

需要 부진이 가격 인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조치라고, 輸入業者들은 보고 있다.

VTR의 무역 마찰 회피에 대한 日本측의 노력에 관해서는 Tape 메이커 各社의 現地生産 강화 등도 간과할 수 없다. Sony, TDK, 日本Victor, 日立 Maxell 등이 EC 域内에서 생산을 개시하였다. 世界 需要의 약 91%를 점유하는 日本製 VTR用 Tape지만, 해마다 계속 늘고 있는 VTR用 Tape의 輸出 물량에 대한 금액이, 가격 하락 등으로 고심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이런 속에서 現地生産化의 움직임이 있고, Philips, Grundig가 需要 확대가 시급한 VHS 방식에 대해서는, 특히 日本 Victor가 西獨의 Video Cassette 組立 工場을 月産 20만~30만개 체제로부터 100만개로의 능력 규모 3배 증강을 대응중이며 현지 고용 증대에도 공헌하고 있다.

歐·日의 무역 마찰 회피로 日本 업계가 머리를 앓고 있는 또 하나가 CD(Compact Disc Player)의 關稅 인상이다. 금년에 들어와 EC가 당시까지의 9.5%로부터 일거에 19%로 인상하여, 이대로 高率의 관세가 계속될 경우 EC 域内에서 생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CD의 경우, 歐洲에서는 元組인 Philips社가 Player 가격을 대폭 인하시키므로써 日本은 가격 경쟁력에서 점차 불리해진다. 물론 高關稅率이 크나큰 장벽이 되고 있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歐洲의 電機 업계에서는 CD의 관세 인상 성공으로 自信을 갖고 CD 관련품은 모두 19%, C CD 채용의 Video Camera, Video Disk Player, 衛星放送受信 가정용 機器, 가정용 雙方向 System에 대해서 GATT 19條의 채용을 EC 委員會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EACEM(歐洲家電産業聯盟)의 EC 委員會에 대한 관련 품목의 關稅 引上 요청을 살펴보자. 이 움직임은 Philips, Thomson이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적대 관계인 二大 그룹이 日本의 위협 앞에서 結束하여 對日 보호주의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일대 사건이었으나, 동시에 이것은 Analog로부터 Digital技術 전환에의 역사적 前夜에 돌발한 사태였다.

Analog 기술에서의 실패를 재차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에 까지 非關稅 장벽을

설치한 것은 歐洲나 日本 모두에게 마이너스라고 日本側은 주장하고 있다.

어찌 되었든 이러한 노력으로 歐洲의 苦惱, 즉 ① 1,200만명의 失業, ② 電子化에의 뒤처짐, ③ 약 120억弗의 輸入초과(對日)을 해소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歐洲 家電産業 육성에 대해서는 첫 Project인 ESPRIT計劃 및 각국 政府 助成의 Micro Electronics 育成策의 성공이 정말 보장될 것인가 일단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西獨, 英國, 프랑스의 업계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일한 구제책이라 한다면 ESPRIT計劃뿐이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는 New Media로 集約되는 소원이라고 볼 수도 있다.

EC 각국이 국경을 초월하여, 官·産·學 협동으로 정보산업의 연구 개발에 참여하려는 ESPRIT 계획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歐洲의 장래성을 점치는 것으로 주목해야 한다.

이 계획은 83년 12월에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개최되었던 EC 首腦會議 석상에서 합의한 것으로, 84년부터 10년간 실시하게 된다.

정보의 전략적 중요성을 각국이 인식하였다는 일 자체는 높이 평가되지만 가까운 장래, 그 大前提가 되고 있는 半導體, 光, Digital 新材料 등 첨단 기술의 기초 분야가 책임을 지고 歐洲에서 美·日 같은 「規模의 經濟」상에 충분히 성립될 것인가를 좌우하는 Key를 쥐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日本側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또 한가지, ESPRIT計劃은 Video Disk 및 Laser Disk 등에서 볼 수 있듯이 歐洲 특유의 着想이 어느 정도의 質量으로 단시간 내에 탄생할 것인가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New Media에 대한 각국의 기대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강하다. 현재 상태에서도 이 분야에서는 官·産·學 협동으로 정보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西獨 郵政省은 전국 CATV網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현재 CATV 실험방송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으며, 실험 Project라고는 하지만 루트위히스하펜, 문헨, 도르트문트, 西베를린 등지에서 각기 수천 世帯 단위로 착실히 加入者

가 증가되고 있다.

Videotex(雙方向文字圖形 System)인 Bildschirmtext의 실용화에 대한 관심도 높다. 歐洲 統一型의 실용 모델 機器의 개발 및 Software製作에는 이미 50여 업체가 참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Siemens의 送受信 겸용 Personal Computer 는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英國이 79년부터 商用化에 들어가 있어, 세계 20여개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기록을 갖고 있다. 英國 郵電公社의 PRESTEL이 기타 Bildschirmtext (BTX) TELETEL (佛), TELEDON(캐나다) 등 각종 System 중에서 완성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British Telecom社에 의하면 PRESTEL 은 5년간에 4만 5,000대의 端末에 달하였는데, Office用이 60%, 가정용이 40%이며 몇 년 후에는 그 비율이 逆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英國은 BBC 중심으로 衛星 TV放送을 계획 중인데 DBS(直接衛星放送)는 獨·佛과 合同 Project로 되어 있다.

CATV 분야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南西部에서 착수중인 光 Cable도 21世紀의 고도 情報化社會를 지향한 歐洲의 첨단 기술 實用化 例로서 금후 전망이 좋다.

情報産業 중에서도 家電製品의 市場 형성을 촉진해 주는 기술적 Idea는 歐洲에 수없이 있다. 하지만 역으로, 産業化가 늦은 着想만으로 그치는 일이 된다면 그 원인은 위험을 기피하는 歐洲 資本의 保守性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의 ESPRIT計劃에는 Lisk를 극복하고, 英知와 불굴의 정신으로 절박한 歐洲의 위기감에 대항하려고 하는 EC 각국의 크나큰 決意가 엿보인다.

이런 동향에 대한 美 産業界의 대처가 적절하지만, 日本도 전통 있는 생산 기술면에서의 협력을 필두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歐洲가 어디서 自信을 회복할 것인가. 세계 경제의 행방은 이 점에 집약된다. 겨울의 時代를 맞이한 西獨, 英國, 프랑스 3大國의 産業界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日本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EC 域內에서 각국마다의 사정이 저마다 다른 사실을 충분히 이해해서 대응하고 자

(P. 86으로 계속)

의 肉聲이 擴散되어 듣기 거북한 소리가 안되도록 周波數特性上의 處理를 行하고 있다.

同機를 사용하여 構成한 System은 圖2의 모양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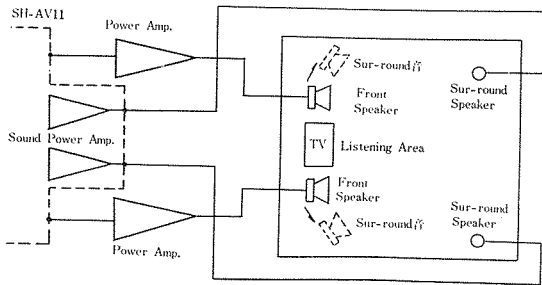


圖 2

Front로부터의 再生音은 Sur-round信號 成分이 L-ch, R-ch의 Speaker 밖에서 定位하여 擴大感을 頓구하고 있으므로 橫方向에 대한 Listening Area는 넓어지고 있다.

Sur-round Speaker는 後方 또는 側面에 配置할 수 있으나 後方に 配置할 경우 圖에서 볼 수 있듯이 房을 감싸는 듯한 音場을 만들게 되어 映畫館의 霧靄氣와 비슷한 效果를 보이게 되며 既存 Source로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또한 本機는 AV Sound 뿐만 아니라 音만의 音場再生에 사용해도 상당한 效果가 있다. 本機와
.....P. 58에서 계속.....

하는 게 日本이다.

一例子가 日本製 VTR의 수출 최저 가격에 대하여 日獨 關係로 인하시킨 조치다. 西獨 關係에서는, Grundig社의 말을 인용하면, 현재 생산 확대를 계획중인데 時期가 좋지 않게 日本 제품의 輸出振興策이 나왔다고 難색을 표명하며 아울러 Dumping을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10월에 걸쳐서 歐洲 通貨는 弗高에 의해 전면 하락되었다. 마르크는 계속 떨어지고, 프랑과 파운드貨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炭鑛 스트라이크(英), 金屬勞組 스트라이크(西獨), 內需 부진(佛)의 후유증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중에서도 自國 通貨의 弱勢를 다시 한번 폭로시켰다. 한술 더 뜬다는 말처럼, 歐洲의 家電 대업체들은, 이 기회를 수출 강화의 찬

같은 日의 商品들이 나오고 있으나 回路構成上 多少差異가 있을 뿐 既存 Source를 대상으로 새로운 音場을 구하는 基本的方向은 마찬가지이며 基本이 되는 回路도 共通點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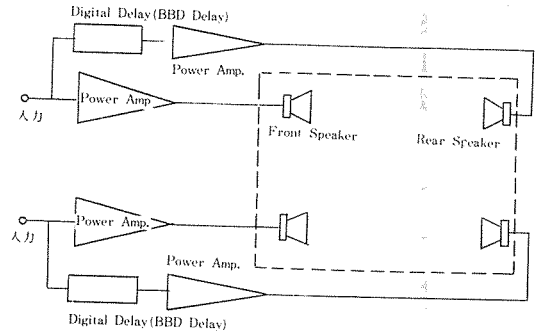


圖 3

音場再生技術에 대해서는 아직 定說이 없으나 圖3처럼 Pre Amp信號 一部를 Digital delay 回路 혹은 BBD Delay 回路를 사용해서 電氣的 殘響音을 만들어내어 Side 또는 Rear에 設置한 Speaker에서 再生하는 것이 大部分이다. 이 방식은 앞으로 여러 面으로 試驗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Source가 Digital化되면 Digital信號 그대로를 여러 가지로 信號處理할 수 있게 되므로 Analog時代에는 不可能했던 일들이 가능해질 공산이 크다.

스로 본다면 歐洲에는 조금도 마이너스 요인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歐洲가 自力更生을 하며 技術革新이라고 하는 국제 경쟁 조건을 만족시키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국이, 필연적으로 日本으로부터의 尖端 技術 移入에 나서야 하며, 輸出 강화라고 하는 Factor(要因)는 이 경우 물론 일시적으로 相衝될 것이다.

이 경우, 歐洲 각국의 요청을 받게 되는 日本도 限度를 제한하는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와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家電機器의 종래 技術을 검토하는 제2회 EC·日協議會가 10월 3日 東京에서 개최되었다.

不況의 늪에서 헤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歐洲의 電子業界는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